

완도군, 군민 모두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 지정 박차

군민 참여 확대 성평등 정책 실현 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지표 2026~2030년 중장기 계획 수립 화장실안심스크린 설치 안전 강화

완도군이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여성 친화 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여성 친화 도시'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지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 도시 전담 인력 배치, 제1기 군민 참여단 발족, 성평등 정책 우수 부서 포상, 여성 일자리 협의체 및 여성 안전 실무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부서 및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여성 친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 여건 및 정책 추진 기반을 분석하고 여성 친화 도시 5대 목표의 영역별 정책 과제를 발굴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안전,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

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취·창업 교실'을 상·하반기로 확대 운영하고 '완도형 여성 친화 기업 공모사업(가칭)'을 신규 추진하여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시범 운영해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 군 소관 위원회별 성별 균형 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성별 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 1인 가구 등에 안심 센서 지원 지속 추진, 공공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 강화 사업도 전개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성 친화 도시는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친화 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

지역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완도=정태영 기자**



원광전력(주), 지역 대표기업 선정 에너지 융합기술 개발 성과

원광전력(주)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주관하는 제2기 KICT 지역 대표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9일 원광전력(주)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지역 균형발전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제2기 지역 대표기업에는 전국 5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남지역 대표기업으로 원광전력(주)이 선정됐다.

원광전력(주)은 신재생 에너지 및 사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건축물 및 에너지 설비 융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전연수 원광전력(주) 대표이사는 "원광전력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안 해결 기술 교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며 "해의 의존도가 높은 발전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개보수 완료...내달1일부터 재개장 목포시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는 부주산 국민체육센터가 약 2개월간의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는 3월1일부터 재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시는 그간 시설개선 공사 중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사고와 소음, 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국민체육센터를 불가피하게 휴장했으나,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재개장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영암군, 선착순 96명

영암군이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9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1328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5주 단기, 15주 중기, 25주 장기 과정으로 나뉘며 18~49세 구직 단념, 자립 준비, 청소년시설 입·퇴소,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1:1 상담을 비롯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수당과 함께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워크넷 구축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참여 희망 청년은 온라인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의 고시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사회적 일자리팀(061-470-2351) 또는 (재)전남인력개발원에서 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 18일 강진군이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반부패·청렴 실천 나섰다

강진군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서약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약서 서명을 통해 공정한 업무 수행, 부정청탁 근절, 부당지시 및 갑질 금지 등 청렴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을 함께했다.

서약식은 청렴 서약서 낭독과 간부공무원의 서명과 청렴 문구를 활용한 청렴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강진군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부패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군민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강진군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목포문학과, 문학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선발

강좌당 성인 30명·초등 20명 모집

목포시는 목포문학과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의 문예대학 3개 반,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문학 교실 2개 반으로 구성된다.

문예대학은 소설가 채희운 전 광주여대 교수가 지도하는 '소설 창작반', 동시작가 조기호 작가가 지도하는 '동시반'과 시인 김선태 목포대 교수가 지도하는 '시 창작반'이 진행된다.

각 강좌당 성인 30명을 모집해 총 15회 진행되며 글쓰기 기법과 합동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작 이론 및 실기를 지도할 예정이다.

어린이문학교실은 초등 1~3학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글쓰기', 초등 3~6학년생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논술의 비밀 수업'

을 진행한다. 각 강좌당 20명을 모집해 총 15회 운영한다.

수강 신청은 20일부터 강좌 시작 전까지 목포문학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강좌별 4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학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문학 후학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문학과는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한국 최초의 장편 여류소설가 박화성,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한국 평론문학의 독보적 존재 김현 등 한국 문학사의 거장 4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국내 최대 복합 문학관이다. 연중 다양한 문학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지역 문학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난 18일 강진군청 직원이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근력 강화 운동교실 1기' 참가자의 근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보건소,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교실 사전검사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18일까지 관내 복지회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교실 1기'의 사전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19일 강진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전검사는 본격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운동교실에 참가자들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검사에는 SPPB(정적 균형검사, 보행속도 검사, 하지근력 검사), 체성분 측정(Inbody),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지표(건강생활실천율, 걷기실천율, 영양표시활용률) 설문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근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3~6월까지 진행될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교실에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예정이다.

검사는 작천면을 시작으로 읍천면, 군동면, 신전면, 칠량면, 도암면, 강진읍의 7개 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어르신 근력강화 운동교실 사전검사 관련 문의 사항은 강진군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61-430-5261)으로 하면 된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전검사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